



**[금융]**  
내달 가계대출  
추가대책 예고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06



Life

**[라이프]**  
명절 증후군  
쇼핑으로 풀어요  
유통가 프로모션  
니



### 세계도시의 빈부격차 해결법은...

#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투기 차단 등 주거안정 정책 펼쳐

**중국 광둥성**  
지역 내 취업 청년에 보조금 지급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생 주거시설 시공비 무이자 대출  
**베를린**  
지역보호구역 지정, 부동산 투기 방지



지난 17일 중국 남부 광둥성에 건설 중인 광저우 국제 보건의소 전경. /뉴시스

세계 주요 도시들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구입 보조금 지급,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 확충 프로그램 가동, 지역보호구역 지정 등의 주거 안정 정책을 펴고 있다.

22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은 젊은층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거주안정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2018~2025년 광둥성의 중장기청년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거주안정계획은 지역 내에 취업 중인 젊은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주택 구입비용, 임대료 보조금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종혁 통신원은 "광둥성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출신 청년을 고향에 거주토록 하고, 다른 지방의 젊은 인재도 계속해서 유입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청년거주안정계획은 광둥성 소재 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라면 다른 지방 출신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광둥성은 청년 취업자가 관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집 또는 방을 임차하면 소요 비용 가운데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광둥성 정부는 작년까지 약 4억8500만위안(약 886억 5800만원)의 보조금을 배정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지역 내 공급될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최대 20%를 청년들에게 주기로 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을 새로 짓거나 상업공간을 대

학생용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건축업자에게 시공비 일부를 2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대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대학교 소속 학생에게만 세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월세는 관리비 포함 최대 350유로(약 48만6100원)이고, 대학생 전용 주거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은희 통신원은 "대출 기간에는 집세를 올릴 수 없으며, 학생은 거주하는 동안 해당 학기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프랑크푸르트시 주거지 관리국에서 거주자 자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베를린시는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자 '사회적 보존령'을 도입해 지역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사회적 보존령은 구역 내 거주인구 유지를 목표로 하는 법령이고, 지역보호구역은 사회적 보존령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유지해 저소득층이 도시에서 쫓

겨나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지역보호구역 내에서 주택의 건축을 변경·철거하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특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택의 개·보수 혹은 현대화 사업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기존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베를린시는 지역보호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구청이 사전에 해당 거래 예정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이 매매가 사회적 보존령의 목적에 어긋나면 독일연방건설법에 명시된 선매권을 활용해 구청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입할 수 있다.

신희원 통신원은 "시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매권을 활용해 지역보호구역 내 약 2300채의 주택을 매입했고, 7500채 주택은 '회피 합의'(주택 소유자가 선매권을 가진 구청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신 구청과 맺는 합의)를 체결, 약 9800채 주택이 투기성 매물이 되는 일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오세훈표 규제완화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오늘부터 내달 29일까지 후보지 접수  
12월, 25곳 내외 최종 후보지 확정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

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연 1회 정기 공모 방식으로 변경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막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법적 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의지, 구별 안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시는 내달 자치구별 사전 검토를 거쳐 12월에 선정위원회를 열고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자전거 시험 합격하면 따름이 30% 감면

일일권 30%, 정기권 15% 2년간 할인

자전거 이용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에 합격하면 따름이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제를 통과한 시민에게 따름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일권은 30%, 정기권은 15% 할인된다. 요금감면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

년이다. 합격자가 따름이앱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일일권이나 정기권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올바른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도입했다.

자전거 인증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치구)나 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교육 일정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해 LPG화물차 보조금

LPG화물차 1000대분 보조금 지급

서울시는 1t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를 새 차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1t LPG화물차 전환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2년간 총 545대를 보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노후 소형 경유차 1대를 조기 폐차한 후 LPG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미세먼지(PM10)가 연간 2~4k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설명했다.

시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액화석

유가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1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1000대에 해당하는 40억원이다.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LPG협회 콜센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0 | 해질 / 18:28

9월 23일 (木) 음력 : 8월 17일

수도권 날씨 17~2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3/24, 동두천 14/24, 가평 14/23, 파주 14/24, 서울 17/24, 양평 15/24, 인천 19/24, 수원 18/24, 용인 18/24, 백령도 19/22, 평택 15/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마스크, 바이든 조롱... '반노조 테슬라 압박' 갈등 배경인듯  
▲ 美 50개 이상 기업 낙태 금지법 반대 서명... 애플 등 '불참' /사진 뉴시스

▲ 美연준, 11월 테이퍼링 계획 발표 후 12월 실시 전망  
▲ 美,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도입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 美코로나19 하루사망자 1900명대... 백신 미접종자 중심 발생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유엔연설 "기후변화 인한 난민 위기 온다"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